

동시대 '판화' 독창성·예술성...장벽을 깨고 소통하다

한국·프랑스 교류전 '포레라송'...24일까지 은암미술관 무등갤러리·갤러리 생각상자·전남대 박물관 연계전시도

프랑스와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존 판화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은암미술관은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대표 노정숙)와 함께 '2024 한국·프랑스 교류 포레라송' 초대전시를 오는 24일까지 연다. '포레라송'은 한국을 뜻하는 '포레', 교류를 의미하는 '라송'이 합쳐진 단어로, 한국과 프랑스 판화가 교류단체 이름이기도 하다. 포레라송의 첫 시작은 2007년 프랑스 센느 마리팀 도청 지원으로 열린 전시였다. 프

랑스 예술가 5명과 한국 예술가 5명이 참여한 전시는 프랑스 루앙에서 진행됐다. 한국 영화 '꽃잎'과 동·서양 판화 세미나, 워크숍 등을 시작으로 예술 소통 도시로서 첫 인연을 맺었다. 2018년에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광주 예술가 10명이 초청돼 프랑스에서 전시를 가지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아카이브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 광주 판화가들은 루앙·엘버프·블루아·로제르·루아르 등

프랑스 5개 지역에서 1년 간 순회전을 가지며 프랑스 판화 애호가들에게 동시대 광주 판화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경험하게 했다. 이중 블루아 지역 그리프 단체 초대 전시회에서의 인연을 계기로 양 지역 교류 협력 기회가 생기며 이번 광주에서의 전시가 성사됐다. '포레라송' 이름을 내걸고 여는 6번째 전시다. 전시에서는 노정숙·김익모·김제민·장원석·채종기·채경혜·홍진숙·박인숙·정순아·강행복 10명의 한국작가와 무리엘 바움가트너·크리스틴 부비에·마리 르 브루세·소피 뒤몽·케디자 에니페르 쿠르투아·블랑딘 갈티에·파스칼 지하흐·피에르 귀린·사빈 크라프치크·로렌스 말헤르브·미리엘 모로·루크 티부르스 12명의 프랑스 작가 총 22명의 68점 작품을 선보인다.

은암미술관 전시와 함께 연계전시도 마련됐다. 오는 24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는 한국·프랑스 교류 '루아르 강의 예술 불꽃'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며, 갤러리



노정숙작 '삶의 경계'



파스칼 지하흐작 '상상 속의 정원'



미리엘 모로작 '물의 극장'



사빈 크라프치크작 '달리아스 컬렉션4'

생각상자에는 프랑스 예술가 파스칼 지하흐 초대전 '나무와 삶에 대한 서사'가 마련됐다. 전남대 박물관에서는 프랑스 예술가 블랑딘 갈티에 초대전이 진행된다.

앤마리 피오레 블루아 그리프 단체 대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창작자들 간 지속적인 유대로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문화 예술이 필수적임을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노정숙 대표는 이번 그리프 단체와의 첫 교류에 대해 "확대된 지역의 삶과 예술의 만남을 상기시키며 다양한 장르로 만나 펼쳐지는 교류의 동행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채종기 은암미술관장은 "판화를 매개로 한국과 프랑스 간 교류 네트워크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며 "양국 판화가 함께 열 어갈 앞날에 더 큰 발전을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세계적 거장과 함께하는 음악회

양상블 칸타빌레 특별기획공연...오는 22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지역 음악단체 양상블 칸타빌레 특별기획공연 '세계적 거장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세계적인 이탈리아 거장 지휘자 잔 루이지 잠피에리가 출연한다.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 프랑코 페라라에게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오페라코치로 활동했다. 런던 심포니 수석지휘자, BBC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페루자 국립음악원 교수로서 20세기 이탈리아인 심포니 레파토리 복원 사업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함께하는 협연자도 눈길을 끈다. 클래식 레퍼토리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팬플루티스트 안드레아 카라, 지역 출신 음악가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첼리스트 김형군이 함께한다.

공연의 서막은 레스피기 '고풍적 무곡과 아리아 제3 모음곡'으로 시작한다. 이어 차이콥스키 6개 소품 중 4번 '녹턴'을 김형군 첼리스트 협연으로 들려주며 팬플루티스트 안드레아 카라와 함께 아랑방 '베니스의 축제', 디니쿠 '호라 스타카토' 무대를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는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번호 48번'으로 장식한다.

한편 양상블 칸타빌레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음악가 단체로 '아름답게 노래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2022년 12월 창단 연주회 '모차르트, 그리고 겨울'을 시작으로 지난해 정기연주회 'Start With Basic', 장애인 전국제전 성공기념음악회 '동행', 지난 2월 이태리 피렌체 뮤직 페스티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연주 'OMGGIO A PUCCINI' 무대 등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최명진 기자

전남공예품대전 대상 김남주 작가 '물 속 풍경'

전남도는 15일 "우수 공예품을 발굴하는 등 공예문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제54회 전남도공예품대전에서 김남주 작가의 '물 속 풍경(사진)'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담양군공예인협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목질,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공예 등 6개 분야에서 총 47점이 출품됐다.

심사 결과, 예술성·실용성·상품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김남주 작가의 '물 속 풍경'이 대상을 차지했다.

거북이와 물고기들이 함께하는 풍경을 나전 기법을 통해 작가만의 시각으로 풀어내 호평 받았다.

금상에는 김유성 작가의 '여름'이 선정됐다. 전남 대표 공예품인 고려청자를 현대화해 연



리문 기법을 활용, 연문양으로 음각한 작품이다. 강진 청자만의 특유한 빛깔과 광택을 자랑했다.

대상과 금상을 비롯해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상 4점, 특선 6점, 입선 8점 등 총 25점의 수상작은 제54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출품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